

나는 *** (집필자 이름)입니다. 요즘 담배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피는 사람과 피지 않는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담배란 식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음식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르듯이, 담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모두 같고, 하나뿐인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인권에도 관계되기도 하므로, 다수를 위해 소수가 참아야한다는 식의 방법으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루에 10개피정도 담배 피우는데, 언젠가 아버지에게 몸이 나빠지니 담배를 끊도록 말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담배를 피우면 소화도 잘 되고, 긴장감이 해소되고 무엇인가 불안한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안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기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세상의 반이상의 사람들은 피우지 않으므로, 그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장소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별도의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절대 안되겠죠. 그것은 마인드에 관계되는데 공생공존의 사회이므로, 다른 사람의 것도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것 분명히 지켜주면 피우는 쪽도 피우지 않는 쪽 양쪽모두 트러블 따위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요즘 마스크에 의하면, 기내에서의 흡연은 전부 안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그것은 흡연자에 대한 것,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기에 개인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좀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상대적인 사고방법이 있으면 좋겠죠.